

# 대법 “회사 분할해도 벌점은 인수합병한 회사로 승계”

### 구 한화S&C→한화S&C→한화시스템 “승계 안되면 벌점 제도 무력화 소지”

회사를 분할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벌점은 해당 사업 부분을 승계한 회사로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구 한화 S&C는 2017년 10월 에이치솔루션과 한화 S&C로 분할했고, 한화시스템은 2018년 8월 한화S&C를 흡수 합병했다.

공정위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구 한화 S&C에 시정명령 2회, 경고 1회, 과징금 부과 3회를 명령했다. 벌점 합계는 11.75점이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한화시스템의 벌점 누산점수가 10점 이상이라며 관계 행정기관에게 한화시스템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 한화 S&C에게 부과된 벌점이 한화시스템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서울고법은 구 한화 S&C와 분할신설회사

인 한화 S&C의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한화시스템이 구 한화 S&C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화시스템이 구 한화 S&C의 벌점을 승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 한화 S&C의 5개 사업 부문 중 ‘신사업투자 및 일반지분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 사업 부문이 한화 S&C에 이전됐고, 공정위가 구 한화S&C에 대해 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관련 사업은 모두 한화 S&C

에 승계된 사업 부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구 한화 S&C에 부과된 벌점은 한화 S&C에 귀속된 후 한화 S&C를 흡수합병한 한화시스템에게 승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회사분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신설회사에 대해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다면 기존에 부과 받은 벌점 및 이에 따르는 후속 처분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어 벌점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이슬기자



여름의 문턱, 서핑 즐기는 서퍼들  
파도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소만(小滿)'인 2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해수욕장에서 서퍼들이

## 화정아이파크 철거 시멘트 가루에 인근 차량들 피해

### 일부 상인 “이틀 동안 가루 떨어져...대책 수립 촉구”

붕괴 사고로 전면 철거 사전 작업이 시작된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가루가 떨어져 이틀간 차량 10여 대가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인근 피해 상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3동 철거 현장에서 다량의 시멘트 가루가 도로로 떨어졌다. 가루가 고층에서 떨어지면서 왕복 2차로 갭길에 세워둔 차량 6~8대가 피해를 입었다. 앞서 전날 같은 구역에서도 주차된 차량 10여 대가 공사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썼다.

한 상인은 “시민들과 상인, 고객이 오가는 길목이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공사와 지자체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은 무너진 1개동을 포함한 총 8개동 철거 작업을 앞두고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현산측은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외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과 살수를 병행하다 시멘트와 비산 먼지가 섞인 물이 바람에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산 관계자는 “기상 영향을 고려해 외부 가시설물 작업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본



20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철거 작업이 진행중인 공사장에서 날린 시멘트 가루가 주변 차량에 떨어져 있다.

격적인 철거 작업이 들어갔을 때 가림막을 설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변용일기자

## 도난 휴대폰으로 7000만원 챙긴 귀화 외국인 구속

### 장물 휴대폰 상습 매입해 장물업자에게 되판 혐의

서울 종로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도난·분실된 휴대폰을 상습 매입해 약 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귀화 외국인 장물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장물 취득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귀화 외국인 장물업자 A씨를 긴급체포해 15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8개월간 도난·분실된 휴대폰을 20만~100만원에 매입해 서울 시내 재래시장에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등 외국인 장물업자에게 재판대해

대당 5만원~7만원 상당의 차이를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직후 주거지를 수색해 주방 싱크대 밑에 숨겨둔 장물 휴대폰 34대와 전장 두 곳, 냉장고 선반, 전기밥솥 등에 나눠 숨겨둔 현금 6805만원을 긴급 압수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 대포폰 등을 이용해 절도범·장물범과 연락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인 주택가 건물계단, 차량 안 등에서 거래했고, 대포폰을 한 달 주기로 변경해 경찰수사에 대비한 것

으로 드러났다. 지하철경찰대는 지난해 10월 구속한 절도범과 장물범을 수사하면서 A씨의 실체를 파악, 지난 3월 구속한 베트남인 장물총책, 4월 구속한 절도범과 그 일당을 수사하면서 A씨에 대한 추가 단서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후 A씨가 사용한 공중전화 위치와 CCTV 300여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5일간 잠복수사한 끝에 검거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장물 휴대폰을 넘긴 장물업자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하철 내 절도 범죄는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